

# “한국 등 7개국, 코로나 방역 MVP”

## 블룸버그통신 선정

“변이 퇴치·경제활동 우수”

## 노르웨이·캐나다·스위스 등 포함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 7개국에 뽑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가 변덕스러운 코로나19에 맞서 꾸준한 안정세를 보였다”며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방역 MVP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선정한 코로나19 방역 MVP 7개국은 한국 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스위스다.

통신은 이들 7개국은 강력한 보건 의료 체계와 사회적 결집력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매 단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규율에 따르므로써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 덕분에 신속하게 백신

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지금까지 한 번도 블룸버그 통신의 ‘코로나19 회복력 순위’ 1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백신 접종률이나 델타 변이 퇴치, 경제 활동 재개 등 모든 면에서 늘 평균 이상 수준이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블룸버그는 각국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통계, 백신 접종률과 여행 제한조치 해제 등 여러 데이터에 근거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연합뉴스



무료 식품 받기 위해 줄 선 미국 첼시 주민들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첼시에서 비영리 사회복지 단체인 ‘라 콜라보라티바 푸드 팬트리’가 나눠주는 무료 식품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미 인구 통계 당국에 따르면 인구 4만 명의 첼시 시민 가운데 18%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중국 이어 인도 ‘민간 가상화폐 사용 금지법’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민간 가상화폐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기초 기술 진작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모든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막게 된다.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를 마련해 올해 내로 유통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의회 겨울철 회기에 상정된다. 법안

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도는 주요 경제대국 중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게 된다. 인도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인어널리시스에 따르면 인도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66억달러(약 7조 8000억원, 5월 기준)로 지난해 4월 9억 23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보다 크게 성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의 수는 13억8000만 인구 가운데 최대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 홍콩보안법 위반 20세 학생 징역 43개월 선고

## 보안법 실행 세번째·최연소 인물

홍콩의 20세 학생 운동가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3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학생 운동가 토니 청에 대해 국가 분열과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3년 7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세번째 인물이자, 최연소 인물이다.

앞서 지난 7월 식당 종업원 출신 24세 남성이 테러와 국가 분열 혐의로 징역 9년, 이달 초에는 음식 배달 노동자 출신 31세 남성이 국가 분열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학생 조직 ‘학생동원’ 대표였던 청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관련 시위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의 변호사는 청의 어린 나이와 그가 홍콩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

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청이 구체적인 국가 분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의도가 명백했으며, 국가 분열죄는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은 지난해 10월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맞은편 커피숍에서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에 체포됐다. 당시 홍콩 언론은 그가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150여명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다수가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에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벌인 활동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 “전자담배 피우면 만성 염증·질병 유발”

##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팀 연구

전자담배를 피우면 사람 몸속에서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이날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린 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논문은 전자담배의 화학성분이 세포 기능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암은 물론 심혈관·호흡기·신진대사 관련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생물학적 영향은 전자담배 이용자가 이전에 걸렸던 피우지는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났다. 다만 일반 흡연자에게서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 저자인 아흐메드 베사라티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처음으로 성인 전자담배 이용자의 생물학적 영향을 조사한 것”이라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흡연과 마찬가지로 면역·염증 반응과 관

련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조절 장애, 분자 경로의 단절 등과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팀은 앞서 전자담배 이용자들에게 일반 흡연자와 같이 구강 세포 조직에 암과 관련된 분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기도 했다. 이번 실험은 82명의 건강한 성인을 전자담배 이용자, 흡연자, 비흡연자 등 3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연구팀은 전자담배 이용자나 흡연자 집단 모두 면역 반응 유전자의 심각한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베사라티나 교수는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요 분자가 방출되는데, 그 분자들은 염증을 야기하는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면서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심혈관이나 호흡기 질병, 신진대사 질환,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 발생에도 치명적인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는 권력을 태우지 않기에 일반 흡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상대성이론 원고 155억원에 낙찰

## 프랑스 경매서 감정가 4배 팔려

## 천재 물리학자 문서 중 최고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수식이 담긴 자필 원고가 150억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원고는 이날 1160만유로(약 155억원)에 낙찰됐다.

경매 시작전 책정된 감정가 200만~300만 유로(약 28억~41억원)의 4배 수준으로, 이 천재 물리학자가 남긴 문서 중 최고가다.

입찰은 150만유로(약 20억원)에서 시작해 두 명의 응찰자가 20만유로(약 2억7000만원)씩 호가를 올리며 경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는 1913~191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아인슈타인이 막역한 친구 미셀 베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52쪽 분량에 1915년 일반상대성이론 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이 담겨있다.

이 중 26쪽은 아인슈타인이, 25쪽은 베소가 작성했고 나머지 3쪽은 공동으로 썼다. 당시 베소와 아인슈타인은 과학계 난제였던 수성 공전 궤도가 고정 궤도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중이었다. 초기 연구 자료인 이 원고 내용에는 아인슈타인과 베소가 연구를 일시 중단하게 됐던

일부 오류도 포함됐다.

1914년 이탈리아로 넘어간 베소가 홀로 연구를 다시 시작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이후 작업을 재개한 아인슈타인이 이 내용을 토대로 1915년 11월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했다.

경매 주관업체 크리스티는 베소가 아니었다면 아인슈타인이 이 원고를 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티는 “1919년 이전인 이 시기 아인슈타인의 과학 원고는 아주 희귀하다”면서 “일반상대성이론의 기원을 적는 것으로 확인된 두 개 원고 중 하나에 아인슈타인의 작업에 대한 비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